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4월 24일(수)

윤석열 대통령, 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24, 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 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